

흡혈귀

Vampir

1. 어원 및 개념 정의

흡혈귀의 어원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마시다'를 의미하는 리투아니아어 'wempti'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독일어 '흡혈귀 Vampir'는 세르보크로아트어인 'vampir', 영어인 'vampire'에서 유래된 단어로, 피를 빨아 먹는다고 생각되는 사 람이나 흡혈박쥐, 혹은 비유적으로 고리대금업자 등을 가리키는데 사용된다.

흡혈귀란 보통 육체를 가지고 있으며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 있는 인간의 피를 빨아서 그 생명력을 빼앗는 죽은 자들을 일컫는다. 영어로는 '뱀파이어 vampire'라고 하며 흡혈박쥐의 뜻으로도 사용된다. 흡혈귀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세르비아,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의 동유럽을 중심으로 멀리 고대에서부터 있어왔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갓난아기를 잡아먹거나 그 피를 빨아 먹었다고 전해지는 괴물 라미아 Lamia가 등장하는데, 이것이 흡혈귀의 가장 오래된 원형이다.

2. 모티프 발달사



<흡혈귀의 모습>

인간이 만들어낸 수많은 괴물과 유령, 마귀들 중에서 뱀파이어로 대표되는 흡혈귀만큼 독특한 계보를 형성하며 인간의 관심을 끄는 대상은 없을 것이다. 흡혈귀는 지역적인 문화현상과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 예를 들면 흡혈귀의 피를 마시는 행위는 기독교 문화의 성찬식과 관계있으며,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니"(요 6:45)와 같은 성경구절과 관련하여 반그리스도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오래 전부터 흡혈귀에 대한 전설이 이어져 왔지만, 문학 작품에서 흡혈귀 소재와 이미지가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1897년 아일랜드 출신의 영국 소설가 브람 스토커가 쓴 『드라큘라』 덕분이다. 스토커는 이 책에서 트란실바니아의 영

원히 죽지 않은 악인인 드라큘라 백작을 흡혈귀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등장시킨다. 이로부터 흡혈귀의 전형적인 특징들이 다음과 같이 전해진다.

- 전형적으로 흡혈귀는 창백한 얼굴, 빛나는 눈, 튀어나온 송곳니를 가지고 있으면서 희생자의 목을 물어 피를 빨아먹고 산다.
- 그림자가 없고 거울에 모습이 비추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해 흡혈귀를 구별할 수 있고, 십자가를 보여주거나 마늘로 만든 목걸이를 목에 두르고 자면 흡혈귀를 멀리할 수 있다.
- 흡혈귀를 영원히 잠재우는 방법으로는 뽕죽한 막대기로 흡혈귀의 심장을 찌르거나 불태우고, 흡혈귀의 휴식처를 파괴하면 된다.

이러한 흡혈귀에 대한 이야기와 특징들은 이후 1920년 무르나우의 영화 <노스페라투>와 1992년 프란시스 코폴라 감독의 <드라큘라>에 그대로 나타나면서 대중적으로도 관심을 얻는데 성공한다.

3. 모티프 유형



<노스페라투에 등장하는 흡혈귀>

뱀파이어로 대표되는 흡혈귀 이야기의 이면에는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 중의 하나인 공포가 투사되어 있으며 영원한 생명에 대한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성적인 금기를 넘어서고 자 하는 터부에 대한 도전과 무의식이 상징적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러한 흡혈귀에 대한 문학적 모티프로서의 유형화는 다음과 같이 가능하다.

1) 악령(유령, 괴물)

흡혈귀는 인간의 공포심을 야기하는 악령이며 유령이다. 그래서 흡혈귀의 모습은 보통 검고 기다란 외투에 길고 날카로운 송곳니와 손톱을 하고 있으며, 낮에는 어둠 컴컴한 지하의 관 속

에서 잠을 자며 밤이 되어야 밖으로 나와 활동을 한다. 원래 흡혈귀는 죽지 않은 존재이지만 왕성한 활동을 위해서 흡혈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모습과 생활환경, 그리고 생존 조건 등은 낯설고 기괴한 느낌으로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노스페라투>에 등장하는 흡혈귀는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2) 팜프 파탈

흡혈귀가 여성일 경우에는 에로틱하며 파괴적인 여성의 모습인 팜프 파탈로 나타난다. 남성을 자신의 성적 매력으로 유혹하여 피를 빨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팜프 파탈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괴테의 『코린트의 신부 Die Braut von Korinth』에서는 팜프 파탈이 흡혈귀로서 형상화 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어머니 신으로부터 쫓겨난 딸의 유령은 생시의 신랑과 하룻밤 동침하면서 그의 피를 빨아먹고 죽게 한다. 또한 엘리벡의 『병 혹은 현대여성들 Krankheiten oder Moderne Frauen』에서는 두 여자 주인공이 흡혈귀로 등장하여 남성 인물들과 대결을 벌이는데, 이처럼 이미 죽은 여성이 흡혈귀로 등장하여 남성에게 복수하는 팜프 파탈의 모습은 통속문학의 소재로 자주 등장한다.

3) 영원한 생명의 상징

흡혈귀에게는 보통 죽음이 허락되어있지 않다. 이 때문에 흡혈귀는 인간에게 공포의 대상이 된다. '영생'이란 신에게만 있으며, 혹은 신이 허락해야만 가능한 것인데, 흡혈귀는 이러한 법칙을 거스르는 존재다. 이 점에서 흡혈귀는 인간의 위치에서 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 인간으로 쉽게 접하지 못할 영역에 서 있는 존재, 영원한 생명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존재를 상징한다.

4) 억압된 성적 욕망의 대상

브람 스토커의 『드라큘라』에 등장하는 흡혈귀인 드라큘라 백작은 한편으로 강력한 힘과 매력의 소유자로 나타난다. 드라큘라 백작이 접근하는 여성들은 그의 묘한 성적 매력에 이끌려 기꺼이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 놓는다. 드라큘라 백작에게 한 번 목을 물린 여성들은 이 후 성적인 갈망에 스스로 백작을 찾게 되는데, 이것은 당시 성적으로 자유롭지 못했던 여성의 억압된 욕망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준다.

4. 서사구조

	내용
원인	파멸에 대한 욕구
	성적 욕망, 유혹
	영원한 생명에 대한 욕구
	악령, 괴물과의 만남
	억압된 욕망
과정	불안, 공포

	목을 물리고 피를 빼앗김
	팜므 파탈에 유혹 당함
	환각 상태에 빠짐
	쾌락에 빠짐
결과	흡혈귀가 됨
	흡혈귀를 물리침
	영원한 생명의 습득
	광기, 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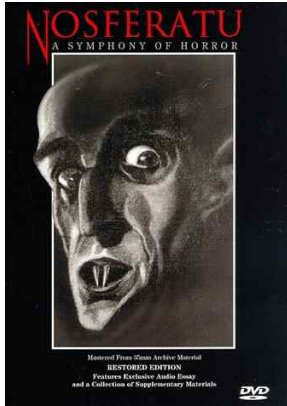
5. 유형 및 서사구조의 예: 『노스페라투 Nosferatu, Eine Symphonie des Grauens』*

감독	프리드리히 빌헬름 무르나우 Friedrich Wilhelm Murnau (1889-1931)
장르	영화(무성영화)
생성년도	1920
등장인물	오를로크: 소도시 비스보르크에 집을 사려고 하는 백작 후터: 부동산 중개소 직원 엘렌: 후터의 부인 하딩: 후터의 친구 크노크: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하는 노인

5.1. 내용 요약

크노크라는 괴상한 노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소 직원인 후터는 비스보르크라는 한 소도시에서 그의 부인 엘렌과 살고 있다. 어느 날 크노크는 비스보르크에 집을 한 채 사겠다는 오를로크 백작의 편지를 받고 후터를 백작의 성으로 급히 보낸다. 후터는 자신이 오랫동안 집을 비우는 것을 슬퍼하는 부인을 친구인 하딩의 집에 머무르게 하고 백작의 성을 향해 떠난다. 길을 가다 어느 덧 해가 저물어 한 여관에 머무르게 된 후터는 우연히 조그마한 책자를 발견한다. 책에는 흡혈귀에 대한 섬뜩한 이야기가 쓰여 있다.

* 무르나우 감독: 노스페라투. 시네코리아, 2004.



다음날 다시 백작의 성을 향해 길을 가던 도중 고갯길에 다다르자 공포감을 느낀 짐꾼들은 더 이상 가기를 거부하고 후터는 할 수 없이 혼자서 길을 떠난다. 그런데 이때 어디선가 기괴한 인상의 마부가 홀연히 나타나 후터를 목격지인 오를로크 백작의 성까지 눈 깜짝할 사이에 데려다 준다. 성에 도착한 후, 어딘지 섬뜩한 느낌을 주는 오를로크 백작을 만난 후터는 식사대접을 받고 하룻밤을 지낸다. 다음날 목에 무언가 물린 자국이 난 것을 발견하지만 후터는 모기에게 물린 것으로 간주해 버린다. 다시 오를로크 백작과 만나 집에 대한 매매 이야기를 하는 도중 우

연히 백작은 후터의 부인 엘렌의 사진을 보게 된다. "당신 부인의 목이 참 아름답군요" 라면서 백작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후터의 바로 맞은편에 있는 집을 사겠다고 한다. 이날 밤 후터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려는 혼령을 만나 혼비백산하여 지하실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 때 지하실에 놓인 관속에서 죽은 시체와 같이 누워있는 오를로크 백작이 눈을 뜨고 후터를 향해 일어난다.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힌 후터는 자신이 성에 갇힌 사실을 인식하고 어떻게든 성을 빠져 나갈 궁리를 한다. 한편 오를로크 백작은 이미 비스보르크를 향해 저주받은 흙이 든 관을 가지고 배를 타고 떠난다. 백작이 비스보르크로 가고 있는 동안 후터는 커튼을 찢어 줄을 만들어 탈출에 성공한다.

백작은 비스보르크로 가는 배안에서 자신이 가지고 간 저주받은 관속의 흙으로부터 페스트균을 옮기는 쥐들을 배안에 풀어놓아 모든 선원을 죽음으로 몰아넣는다. 배가 마침내 비스보르크에 도착하고 이때부터 비스보르크는 온통 페스트가 창궐하고 무구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다. 사람들은 페스트와 죽음의 공포감에 휩싸여 부동산 중개인 크노크를 살인자로 몰아 이 모든 재앙의 희생물로 삼고자 한다.

비스보르크에 도착한 후터는 엘렌에게 자신을 공포로 몰아넣은 흡혈귀에 대한 책에 절대로 손대지 말도록 신신당부하나, 엘렌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책장을 넘긴다. 거기에는 흡혈귀에 대한 이야기가 마치 비스보르크에 일어나고 있는 비극적 현상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 적혀 있고, 그 살인 흡혈귀를 몰아내는 유일한 방법이 쓰여 있다. 즉 결백한 여인이 아무런 저항 없이 흡혈귀에게 자신의 피를 빨게 하여 흡혈귀로 하여금 첫닭우는 소리를 못 듣게 하면 흡혈귀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에 엘렌은 공포로 전율하면서 마을에서 흡혈귀를 몰아내기 위해 창문을 열고 흡혈귀를 맞아들여 자신의 피를 빨게 한다. 흡혈귀는 피를 빨아 먹느라 첫닭이 우는 소리를 못 듣고 밝아오는 태양 빛에 쓰러지고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온다.

5.2. 모티프 유형 및 서사구조

- 유형: 악령(괴물)로서의 흡혈귀

- **서사구조:**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가 밤에 활동하며 마을 사람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다. 그러다 한 여인의 희생으로 흡혈귀는 죽고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온다.

원인	성적 욕망, 파멸
과정	불안, 공포: 페스트가 창궐하고 사람들이 죽으면서 죽음의 공포에 휩싸임
결과	흡혈귀 물리침: 한 여인의 희생으로 흡혈귀를 물리치고 마을에 평화가 찾아옴

6. 작품 목록

슈니츨러 Arthur Schnitzler: 『윤�무 Reigen』 (1897)

스토커 Bram Stoker: 『드라큘라 Dracula』 (1897)

무루나우 Friedrich W. Murnau: <노스페라투 Nosferatu, Eine Symphonie des Grauens>(1920)

엘리넥 Elfriede Jelinek: 『병 혹은 현대 여성들 Krankheiten oder Moderne Frauen』 (1987)

코폴라 Francis F. Coppola: <드라큘라 Bram Stocker's Dracula>(1992)

7. 연계 모티프

공포, 광기, 괴물, 섹스, 악령/유령, 운명, 유혹, 죽음, 팜프 파탈, 환각

※ <모티프 연계를 통한 스토리생성의 예>

모티프 연계	흡혈귀 + 섹스 + 팜프 파탈 + 유혹 + 죽음
스토리	성적 욕망이 억압되어 있던 한 여인이 흡혈귀의 유혹에 빠져 자신의 목을 맡긴다. 자신도 흡혈귀가 된 이 여인은 피와 섹스에 대한 욕망이 커져 팜프 파탈이 되어 다른 남성들을 유혹한다.